

토종벼의 이해와 특성비교

충청남도

예산군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돼지풀>의 기원

고문헌과 범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칠녀를 표기증 원인 <돼지풀>이가 아닐 것이다. 든든, 도망치 등으로 불린다. 박나(麁難)《고통집》경현이 입고 허록달록한 옷을 엔(恩)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개의 외형적 특성을 봐서 이름이 불기도 하고, 잘비로서 그 이미 우아하니 멋진 풍자에서 속설개 희자한 놓도이다. 일제강점기에 정령화를 길기 단급하면서 돼지풀벼도 무기(無基)나 노묘로서 해당 기관성을 반영하여 개명된다.

모두 마린이 있고, 검은색어한다고 기록한다. 키가 크며 금민성종의 특성도 있다.

국립로보드 생물다양성재단에서는 우리나라 논산 지역에서 재배되어 온 토종 돼지풀

배의 방주 목록에 등재하기도 하였다.